

바이엘, 폴리머 기술개발센터 개소

바이엘 머티리얼 사이언스(Bayer MaterialScience)는 경기도 용인에 <폴리머 기술개발센터>를 개소했다고 1월10일 발표했다.



1200여㎡ 규모의 센터는 바이엘의 주요 신소재제품을 전시하는 쇼룸, 연구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1단계로 자동차, 정보통신 등 업종의 수요기업에게 PC(Polycarbonate)제품과 관련해 기술자문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신규제품 컨셉 개발, 샘플 생산, 생산제품 테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엘 머티리얼 사이언스는 PC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

으며, 세계 30여곳에 생산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1/10>